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지방신문협회 공동 인터뷰

“中企 지원 흑자도산 막아야”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은 경영상태는 견실하지만 일시적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13일 대한상공회의소 20층 챔버 룸에서 만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과 함께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금융권의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1시간동안 이뤄진 이날 인터뷰에서 손 회장은 때로는 간결하게 때로는 열정적으로 국내 기업과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펴야 한다고 보는지.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라면 그에 걸 맞는 지역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건설산업 분야를 살리는 게 가장 시급하다. 미분양 주택문제도 건설경기 활성화와 무관하지 않다. SOC 투자를 앞당기고,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지방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고사 위기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긴요”

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부산·전해, 광양만 등 전국 6개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개발하고 있지만 투자유치가 미흡하다. 많은 외국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완화, 세제지원, 정부여건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당장은 미분양주택이 급증하고, 건설업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수요를 늘리는 게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양도세 완화폭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중부세를 폐지하는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 금융위기로 한국 경제 전망이 어둡다. 한국 경제의 회복기를 언제로 보고 있나.

“이르면 내년 말부터 경제 회복”

▲미국의 금융 위기가 유럽 등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 위기의 꽃이 깊어지고 있다. 다만 G7(선진 7개국)과 G20(G7과 신호시장국가가 참여) 등이 전면에 나서기로 합의한 만큼 국제적인 공조에 희망을 걸고 있다. 이르면 내년 말부터는 우리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늦어도 2010년 상반기에 회복 조짐이 두드러질 것이다.

-정부에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은.

▲사실 행정규제가 각 분야에 걸쳐 산재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위 인·허가는 게 모두 규제라고 본다. 우리의 경우 제조업은 물류 금융부문도 규제가 많다. 이 같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얼마만큼’ 피부에 와닿는가라는 체감수준에 있다. 기업 규제 완화가 구체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현재 규제완화정책이 입법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올해 연말에 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규제완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확대에 힘쓰고 있는데, 향후 기업투자를 어떻게 보는가.



▲올해는 당초 기대만큼의 투자성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점진적으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원을 급등으로 키코 등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한 수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환율이 떨어지면 피해금액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적극 도와야 한다. 키코 계약 만기 청산기일을 연장해 주거나, 금융권이 대출을 늘리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각종 규제나 애로사항과 관련해 기업들이 대한상의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피부에 와닿는 규제완화 내년쯤 체감”

▲현재 대한상의에 민간규제개혁단을 두고 있다. 상의 자체인력은 물론 정부와 민간연구소와 연계해 규제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71곳에 달하는 지방 상의를 방문해 애로사항들을 모으고 각종 규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부터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들어 각종 규제를 발굴,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313건의 규제개혁과제를 정부에 건의, 115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지방신문협회공동취재단=임동욱 기자

손경식 회장 ▲경기고·서울대 법대 대표이사 부회장 ▲CJ 대표이사 회장 ▲서울상공회의소 회장 ▲FTA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대한민국항공회 명예총재

검·공매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무사 권숙원
공인중개사 김갑순

(주) 옥션코리아 친절상담
법원 경매 062) 222-8446
H. 010-3666-8446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경매 입찰장 앞)

▶ 대법원(근린주택·상가)

지역	소재지	대/전(㎡)	감정가	최저가	비고
부산	우동	503.9/844	16억5500만원	11억8000만원	주택과 토지
부산	금정동	135.1/13	4억2000만원	3억8000만원	주택과 토지
부산	동래동	484.1/24	12억7000만원	9억5000만원	주택과 토지
부산	동래동	456.7/98	4억2000만원	3억5000만원	주택과 토지
부산	우동	316.8/12	13억7000만원	3억8000만원	주택과 토지
부산	동래동	155.1/90	1억5000만원	1억2000만원	주택과 토지
광주	동구	368.4/12	5억8000만원	4억8000만원	주택과 토지
광주	동구	623.6/40	10억8000만원	7억9000만원	주택과 토지
광주	동구	221.4/14	2억8000만원	1억9000만원	주택과 토지
광주	동구	345.7/75	7억8000만원	5억9000만원	주택과 토지
광주	동구	456.4/80	12억5000만원	10억8000만원	주택과 토지
광주	동구	157.6/47	1억4000만원	8억4000만원	주택과 토지

▶ 대가구(월세)

지역	소재지	대/전(㎡)	감정가	최저가	비고
서구	서동	180.2/34	2억5000만원	1억7500만원	주택과 토지
광주	자립동	174.5/13	3억1000만원	2억1700만원	4억1000만원

▶ 솔박시설(도록)

지역	소재지	대/전(㎡)	감정가	최저가	비고
전북	남원시	2616.5/79	11억4000만원	5억8000만원	주택과 토지
전북	전주시	361.3/2870	17억500만원	9억7000만원	주택과 토지
전북	군산시	340.6/198	4억2000만원	3억5000만원	주택과 토지
전북	전주시	217.6/48	4억5000만원	3억8000만원	주택과 토지
전북	전주시	388.9/76	9억2000만원	4억4000만원	주택과 토지
전북	전주시	210.9/90	5억2000만원	3억5000만원	주택과 토지
전북	전주시	276.1/2071	15억4000만원	8억5000만원	주택과 토지
전북	전주시	490.5/14	3억3000만원	2억9000만원	주택과 토지

▶ 오피스텔

지역	소재지	대/전(㎡)	감정가	최저가	비고
전북	임동동	48	4200만원	2500만원	주택과 토지
전북	자평동	39.5	1억2000만원	7000만원	주택과 토지
전북	자평동	30.4	5700만원	3800만원	주택과 토지
전북	자평동	40.5	7000만원	5000만원	주택과 토지
전북	자평동	38.2	7200만원	4040만원	주택과 토지
전북	신동면	76	5100만원	2800만원	주택과 토지

▶ 곡물면지

지역	소재지	대/전(㎡)	감정가	최저가	비고
전북	임동면	100.7	2억5000만원	1억5000만원	주택과 토지
전북	임동면	100.7	2억5000만원	1억5000만원	주택과 토지
전북	임동면	100.7	2억5000만원	1억5000만원	주택과 토지
전북	임동면	100.7	2억5000만원	1억5000만원	주택과 토지

▶ 지산면 대지

지역	소재지	대/전(㎡)	감정가	최저가	비고
전북	지산면	100.7	2억5000만원	1억5000만원	주택과 토지
전북	지산면	100.7	2억5000만원	1억5000만원	주택과 토지
전북	지산면	100.7	2억5000만원	1억5000만원	주택과 토지
전북	지산면	100.7	2억5000만원	1억5000만원	주택과 토지

▶ 화순남면 주택

지역	소재지	대/전(㎡)	감정가	최저가	비고
전북	화순남면	100.7	2억5000만원	1억5000만원	주택과 토지